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떼오드라마(Theo-Drama) 공연

2017 년 04 월 20 일 (목) 11:48:48

크리스찬월드모니터 > webmaster@cwmonitor.com



▲ 떼오드라마 시리즈는 영성신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가 직접 안무하고 기획하여 공연된 작품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지난 고난주 4월 13일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공연된 RESURRECTIO(라틴어 뜻은 “부활”)라는 작품은 매해 연출해온 떼오드라마(Theo-Drama) 시리즈 중 하나이다. 2014년에는 IMAGO 작품으로 구원의 역사를 세상창조부터 주님재림까지 표현하였고, 2015년에는 PROPHETICA 작품으로 성서적 선지자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설교자들의 정신을 표현하였고, 2016년에는 COMMUNIO 작품으로 성찬의 신학적(칼빈의 성찬론 중심으로) 의미를 깊이 표현하였고, 올해는 RESURRECTIO 작품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 떼오드라마 시리즈는 본교에서 영성신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가 직접 안무하고 기획하여 공연된 작품들이다. 김교수가 주장하는 “떼오드라마”라는 장르는 일반 성서드라마 장르와 구별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문자 그대로 시대적으로 표현하기 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되 더욱더 신학적인 깊이와 의미를 해석하여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상징적 표현의 작품이다. 이 표현은 다양한 예술방식(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김교수와 관련된 제작사인 Imago Christi Studio는 신학과 예술의 통합에 관해 연구하고 실험하여 창의적 작품들을 기획하고 안무하여 무대에 올림으로 기독교 예술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신학을 무대화 함으로

보이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학으로 표현한다.

이번에 공연된 RESURRECTIO 작품은 김교수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처음 영감을 받았다. 그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마른뼈들이 선지자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동력 있는 군대가 되는 이 구약시대의 비전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로 의미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4-5)

이 안무에 숨겨진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라틴어로 “Corpus Christi”)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 다른 하나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예: 에베소서 4장), 즉 교회를 의미한다. 이 작품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그의 공동체인 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는 장면을 표현한다. 특별히 십자가의 행진은 총 24명(22명의 국제대학원생과 2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행되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닌 인류의 죄와 고통을 세계적인 몸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안무에는 에스겔 37장의 성도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대교회 상황에 맞춰 비추어 본다. 바로 이 장면에는 공연자들이 신앙의 왜곡된 상태들(율법주의, 방탕주의, 망상주의, 이성주의/말중심주의, 두마음주의, 열정주의)을 표현하여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인 무언극(춤, 마임, 연기 등)으로 표현하며 시작된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타입(모든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이 등장하여 그의 중보와 선포함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생하는 장면을 세포가 유기적으로 살아나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그의 부활에도 동참한다는 뜻을 한 무리로서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을 공동표현한다. 이 공연의 끝은 곧 열방의 집회와 국제적 성찬식으로 이어진다.

이번 공연과 이전에 모든 떼오드라마 공연들의 특징은 김다니엘 교수의 창의적 안무 외에 국제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이다. 국제리더들을 양성하는 비전으로 창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현재 20개국 80명의 신학생들(석사와 박사과정)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 학생들은 본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재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풍요롭게 표현하는 필수적인 인원들이다. 이들을 무대에 세움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경 받으며, 이들의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국제적인 의미로 선포되며, 이들이 성찬에 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 가운데 참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요한계시록 7:9-10)

이 종말론적 비전과 같이 이러한 국제적인 떼오드라마와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학우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방문객들은 많은 감동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공연은 김교수와 Imago Christi Studio 스태프들로 구성된 연출팀과 13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간다, 카메룬, 프랑스, 미국/캐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개월 동안 힘써 매주 두 세번씩 진지하게 연습하여 무대에 서게 되었다.

RESURRECTIO의 공연자인 학생들은 머리로만 실행하던 학문적 신학 교육이 아닌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실제적 교육을 체험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열정을 쏟아 성실하게 연습하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며 조화를 이루는 연습으로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원과 조언으로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후원자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RESURRECTIO 공연은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매번 모든 공연의 시작은 예산이 준비 되지 않은 채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준비된 재정 없이 공연기획과 안무와 연습을 시작하였고 진행 가운데 차근 차근 채워졌다. 한번의 떼오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무대조명에서 부터 음악, 기술지원, 의상, 홍보,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간 믿음으로 진행 해 온 떼오드라마는 이제 한국기독교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떼오드라마 연구소를 설립하여 Imago Christi Studio와 공동 프로젝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떼오드라마 MISSIO(라틴어 뜻은 “선교”)를 계획하며 본교의 비전인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표현하는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 크리스찬월드모니터(<http://www.cwmonito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